

박형룡의 신학과 한국 장로교회

Korean Presbyterian Church and
The Theology of Hyung-nong Park

이상규 / 신학박사, 고신대학교 신학과교수
Prof. Dr. Sang-Gyoo Lee

시작하면서	184
1. 학문에의 여정	186
2. 1930년대 보수신학의 변증	190
3. 박형룡과 김재준	197
4. 박형룡과 한상동	203
5. 박형룡과 한경직	213
6. '교회의 교사'로서 박형룡	214
7. 박형룡의 신학	217
8. 결론	227

주요어 | 박형룡, 장로교회, 장로교회의 신학, 한국교회, 장로교회의 분열.

요약문 |

이 논문은 한국의 대표적인 보수신학자였던 박형룡의 생애와 사상 그리고 신학이 어떠한가를 고찰하면서 그의 생애와 사상, 신학교육이 한국장로교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추적하였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박형룡의 신학을 김재준, 한상동, 한경직 등 당대의 대표적인 인물과의 비교를 통해 고찰하고, 그의 인간관계, 신학적 차이 등이 결과적으로 한국의 주된 장로교 분열로 발전한 사실에 주목하였다. 박형룡은 한국에서의 근본주의, 보수주의 혹은 개혁주의라고 이름 할 수 있는 정통신학의 정초를 놓고 이를 보지하는 일에 기여했지만, 동시에 한국교회 분열에도 적지 않는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와 함께 박형룡은 그의 신학교육을 통해 한국교회 보수주의 신학형성에 커다란 자취를 남겼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그의 신학사상이 어떠한가를 고찰하면서 한국장로교회에서의 그의 신학적 의의에 대해 점평하였다.

이상규교수

이상규교수는 고신대학교 신학과(BA), 신학대학원(M. Div), 대학원(Th. M)을 거쳐 호주 장로교신학대학(PTC)에서 수학하고 호주신학대학(ACT)에서 신학박사(Th. D)를 받았다. 미국 Calvin College와 Associate Mennonite Biblical Seminary 연구 교수, 그리고 호주 시드니의 Macquarie University 고대사학과와 고대문헌연구소 방문교수로 연구하였고, 현재는 교신대학교 신학과 교수로 교회사와 역사신학을 가르치고 있다. 쓴 책으로는 「교회개혁사」(1996), 「부산지방기독교 전래사」(2001), 「가난과 부요의 저편」(2002), 「교회개혁과 부흥운동」(2004) 등이 있고, 「기독교강요란 어떤책인가」(와파나베 노부오, 1998)를 번역하고 「한상동목사, 그의 생애와 신앙」(1999)을 편집했다. 곧 「일본인이 본 주기철 목사」와 「주기철 목사의 설교집」이 출판될 예정이다.

* 이 논문은 총신대학교 개교 104주년을 기념하여 2005년 5월 19일 개최된 제2회 죽산강좌에서 발표한 논문임.

Abstract

Korean Presbyterian Church and The Theology of Hyung-nong Park

This article is an historical and interpretative account of the life and thought of Dr. Hyung-nong Park, who was most influential theologian in the history of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In this article his life, teaching and christian career were examined in the stream of the theological development of the Presbyterian churches. He who was a 'doctor ecclesiae' nearly for 40 years, involved in theological conflicts from the 1930's to 1970's and pursued and succeeded in adhering to Orthodox theology, and fighting against increasingly prevailing liberalism in the Presbyterian Church. As a leading conservative forces, Dr Park established so-called Orthodox theology in Korean church, however, he is responsible for the divis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es. Especially his break with the Kosin group in 1947 had signalled the failure of Korea's conservatives to find a common course of action, which resulted split of the churches who shares the same theological standpoint.

Key Words : Park hyung nong, Korean church, Presbyterian church, Theology of Korean Church, church division

시작하면서

죽산(竹山) 박형룡(朴亨龍, 1897-1978)은 한국교회가 낳은 대표적인 신학자라는 점에는 의의가 없을 것이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박박사’라고 하면 그것은 박형룡을 의미했고, 박형룡은 한국교회의 신학을 대표했다. 그러기에 그에 대한 평가도 다양했다. ‘한국신학계의 거성,’ ‘한국의 대표적인 보수신학자,’ ‘20세기 세계교회의 엘리야(한철하), 개혁주의 신학의 기수(신복윤), ‘정통주의 신학의 지도자’(주재용), ‘직업적인 칼빈주의자’(정경욱) 등이 그것이다. 그러기에 한국교회사에서 그를 긍정하던가, 그를 비판할 수는 있어도 그를 외면할 수는 없다. 그는 1930년대 초부터 1970년대까지 약 50년간 한국교회사와 신학이 중심에서 활동해 왔고, 그의 가르침과 그 유산은 오늘의 한국교회의 역사와 신학, 교회적 삶의 행로에 영향을 끼쳐왔다. 따라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가 오늘의 한국교회, 특히 장로교회상을 주형해 왔다는 점에 대해서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논구가 이루어져 왔고, 그는 생애여정과 신학은 박사학위논문의 주제가 되기도 했다.” 따라서 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박형룡은 한국장로교 첫 신학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20년대까지는 선교사들이 한국에서의 신학교육을 주도했고, 이 때까지의 ‘한국의 신학’이 있었다면 그것은 한국인에 의해 개진되는 신학이 아

1) 장동민은 박형룡에 관한 연구로 1998년 미국 웨스트민스터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의 논문은 <박형룡의 신학연구>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8).

나라, 한국에서의 선교사들의 신학이었을 따름이다. 한국인들이 신학교육에 참여하기 시작한 것은 1920년대 후반부터였다. 즉 남궁혁(南宮赫, 1882-1950)이 1927년에, 이성휘(李聖輝, 1889-1950)가 1928년에 평양신학교 교수로 참여하였고, 박형룡(朴亨龍, 1897-1978)이 신학교에서 전임교원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는 1931년이였다. 즉 1930년 이전까지는 선교사들의 영향이 신학과 교회 일반에 절대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인에 의한 신학저술이 출판되기 시작한 것도 1930년대에서부터였다. 최초의 학문적 연구는 예일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으로 집필된 백낙준의 *The History of the Protestant Missions in Korea, 1832-1910*로서 1929년 출판되었다. 박형룡은 1935년 「기독교 근대 신학난제선평」을 출판했는데, 이것은 한국인에 의해 저술된 최초의 조직신학 저술로서 총 18장 847면에 달하는 대작이었다. 감리교 정경욱의 「기독교신학개론」이 출판된 때는 4년 뒤인 1939년이였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비록 남궁혁, 이성휘, 백낙준, 송창근, 채필근, 김재준, 윤인구 등 1930년대 활동했던 한국인 장로교 신학자들이 있었으나²⁾ 박형룡은 보수주의 입장을 견지했던 최초의 학자이자 대표적인 신학자였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소위 보수주의적 정통주의 신학을 고수하고 계승하려는 일련의 노력 가운데 그 중심에서 있었다.³⁾ 이런 점에서 그가 한국교회에 끼친 영향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면서 박형룡이 한국교회에서 어떤 의의를 갖는가를 한국교회사의 큰 흐름 속에서, 특히 그와 관련된 교회분열을

2) 유동식, 「한국신학의 광맥」(전망사, 1982), 134.

3) 박아름, <박형룡의 신학사상> 「신학사상」25집(1979, 여름), 14; 유동식, 135.

중심으로 점평(點評)해 보고자 한다.

1. 학문에서의 여정

한국교회사에서 그의 자취를 섭렵하기 위해서는 그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는 일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박형룡은 1897년 3월 28일(음력) 압록강변 평안북도 벽동에서 태어났다. 그의 이름 형(亨) 룡(龍)을 보면 그의 부모나 가계가 기독교 전통과는 거리가 있었음을 직감하게 된다. ‘형’과 ‘룡’이라는 단어는 ‘복(福)’, ‘수(壽)’ 등과 함께 기복양재(祈福禳災)의 무교적 기원(祈願)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당시 작명에서 선호되던 이름이었다. ‘형’은 ‘운(運) 혹은 ‘행운(幸運)’을 의미했고, ‘룡’은 행운의 상징이었다. 박형룡의 부모는 험한 세상에서 형통과 행운을 회구했지만, 박형룡은 사나운 세파에 저항하며 순명의 길을 거절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어거스틴의 말처럼 유한한 인간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헤아릴 수 없는 일이다(finitum non est capax infiniti).

박형룡이 태어난 해는 후일 그가 공부하게 될 숭실학교가 설립된 때이기도 하다. 이 해는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순교자가 되며 동시에 상호 신뢰와 사랑을 나누었던 주기철(1897-1944)이 태어난 해이기도 하다. 그 이듬해는 송창근(1898-1952?)이, 몇 년 후에는 비록 신학적 견해는 달라도 나름대로 한국교회 일각에서 상호 영향을 끼치며, 때로는 대립하며 갈등했던 인물들이 태어났다. 즉 1901년에는 김재준(1901-1987), 김교신(1901-1945), 이용도(1901-1933), 한상동(1901-1975), 함석헌(1901-1989)이 태어났고, 또 그 이듬해에는 한경직(1902-

2000)이 출생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역사의 격변기에 이 민족사의 행로에 나름대로 길을 안내하던 이들이 몇 년을 사이에 두고 태어났고, 그 시대의 질문에 각기 다른 응답을 하면서 한 시대를 엮어갔다.

박형룡은 당시의 관행처럼 전통적인 유교식 서당교육을 받으며 성장했으나, 기독교와의 접촉은 그의 삶의 행로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였다. 그는 김익두목사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였고, 후일 벽동교회에서 최봉석목사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선천의 신성중학교에서 수학하고 1916년 졸업한 그는 평양의 숭실전문학교(1916-1920)를 거쳐 중국 남경(南京)의 금능대학 영문과에 편입하여 2년간 수학하고 1923년 졸업하였다.

소열도(Stanely T. Soltau)선교사의 권유로 도미하여 프린스턴신학교(1923-1926)에서 신학사(Th. B)와 신학석사(Th. M) 학위를 받았다. 만 3년 간 프린스턴에서 수학하는 동안 박형룡은 신학적으로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그의 보수주의 신학은 이곳에 오기 이전에 이미 결정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마포삼열(Samuel A. Moffett), 배위량(William Baird), 그리고 길선주(吉善宙)목사의 신앙적 지도를 받았기 때문이다. 후일 그가 중국의 금능대학을 거쳐 프린스턴에서 수학하는 동안 프린스턴의 학풍과 신학을 배우게 되는데, 이러한 신학교육 때문에 구프린스턴출신의 선교사들과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점은 분명하다. 어쨌든 그는 프린스턴에서 그 자신의 신앙적 이해를 보다 체계화된 학문적 이론으로 정립하게 된다. 프린스턴에서 그는 찰스 하지(Charles Hodge), 워필드(B. B. Warfield), 윌슨(Robert D. Wilson) 등의 영향을 받지만 특히 메이첸(G. Machen, 1881-1937)으로부터 커다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메이첸은 박형룡에 대해 “내가 지금까지 가르친 동양의 학생 가운데서 가장 탁월한 학생이었다.”고 평가했다고 한다.⁴⁾ 그것은 박형룡과 메이첸 간의 관계를 암시하기도 한다. 그는 메이첸 휘하에서 신학적 훈련을 받았기에 그 이 이전에 수용된 보수적인 신앙을 신학적으로 주관화하고 체계화 하는데 있어서 프린스턴 신학교에서의 수학기간은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박형룡은 석사과정에서 변증학을 공부했는데, 이 점 또한 그 이후 그의 행로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가 한국에서 정통신학의 수호자라 불리듯 정통신학의 파수와 수호, 혹은 변증에 진력하게 되는 것은 이런 학문적 여정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변증학을 연구하게 되는 계기 또한 후일 그의 삶의 행로를 예견케 해주는 단서가 된다.

프린스턴에서 신학석사 학위를 받은 박형룡은 다시 컨터어키주 루이스빌에 있는 남침례교신학교(Southern Baptist Seminary, 1927. 9-1927. 7)로 가서 약 9개월간 체류하며 박사학위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하고, 1927년 7월경 귀국하였다.⁵⁾ 프린스턴에서 수학한 그가 왜 이 침례교 학교로 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설명이 없지만, 장동민은 프린스턴과 ‘온건한 칼빈주의’(mild calvinism)를 지향하는 남침례교신학교 간의 신학적 입장의 유사성과 양 학교간의 학문적 교류를 그 이유로 설명하고 있다.⁶⁾ 이곳에서도 박형룡은 변증학을 전공하

4) 장동민, 62.

5) 박아론은 박형룡이 루이스빌의 남침례교 신학교에 머문 기간을 1927년 9월부터 1929년 1월까지로 보고 있으나 이것은 옳지 않다(박아론, <죽산 박형룡박사의 생애와 신학>, 「죽산박형룡 박사의 생애와 사상」 박용규편(충신대학교 출판부, 1996), 140.

6) 장동민, 89.

였다. 귀국한 박형룡은 <자연신학으로부터의 반 기독교적 추론>(Anti-Christian Inferences from Natural Science)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제출하여 1933년 철학박사(Ph. D)학위를 받는다.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박형룡은 평양 산정현교회 전도사로 일하는 한편 송실전문학교와 평양신학에서 가르치다가 1931년 4월부터 장로회 신학교(평양신학교)의 변증학을 가르치는 전임교수가 되었다. 이 때로부터 교수로서 그리고 보수신학의 변증가로 활동하게 된다. 그는 이 때부터 평양신학교가 폐교되는 1938년까지 교수로 있었고, 1942년에는 만주 동북신학원 교수 및 교장으로, 1947년에는 부산 고려신학교 교장으로, 1948년에는 남산의 장로교신학교 교장으로, 1952년 이래로는 총회신학교 교장으로 1972년까지 활동하고 은퇴했다. 즉 그는 1931년부터 1972년까지 약 40년간 한국과 만주에서 ‘교회의 교사’(doctor ecclesiae)로 활동하게 된다.

박형룡은 1935년 「근대 기독교신학 난제선평」이란 책을 저술한 이래, 「표준성경주석 로마서」를 포함한 4권의 주석서와 「믿음을 지키라」, 「우리의 피난처」, 「남은 백성」 등 3권의 설교집, 「기독교 변증학」 등 단행본과 전7권의 「교의신학」을 완간했다. 1978년에는 박형룡의 모든 저작을 한데 묶어 전14권의 「박형룡박사 저작전집」이 출판되었다. 박형룡은 “변증학자로 시작하여 조직신학자가 된 분”이라고 하는데,⁷⁾ 그는 변증학을 그의 「교의신학」의 서론으로 하고 성경신학과 역사신학을 그 기초로 하여 조직신학적 체계를 「교의신학」에 담았다.

7) 박아론, <죽산 박형룡박사의 생애와 신학> 「죽산 박형룡박사의 생애와 사상」 박용규편(충신대학교출판부, 1996), 145.

이상의 분야 외에도 목회학, 예배학, 교회정치, 기독교교육학, 선교학 등에도 관심을 드러냈다.

2. 1930년대 보수주의 신학의 변증

한국교회사에서 박형룡의 존재와 의의를 보여주는 최초의 경우가 1930년대 초 장로교 총회에서 제기 됐던 신학논쟁이었다. 1920년대 중반까지 한국(장로)교회의 신학은 보수적이며 복음적인 신학이었다.⁸⁾ 앞서서도 암시했지만 이 시기의 한국교회의 신학은 선교사들이 주도하였다. 흔히 지적되듯이 피선교국의 교회는 선교국의 신학과 예전으로부터 자유 할 수 없는데 이 시기 한국교회의 신학은 곧 선교사들의 신학이었다. 이 때까지는 선교사들이 신학교육과 연구와 집필 등 신학활동을 주도하였기 때문이다.⁹⁾ 당시 영향력 있는 선교사들로는

8) H.Conn, (Studies in the Theology of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An Historical Outline) Part I, *The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Vol. XXIX No. 1(Nov. 1966), 24ff; 김양선, 「한국기독교해방십년사」, (총회종교교육부, 1956), 185; 김의환, 「도전받는 보수신학」, 49.

9) 감리교회는 1900년에 「신학월보」라는 계간지를 출판하다가 1916년에는 「신학세계」로 개명한 후 월간으로 발간되었는데, 한국인 학자들의 글이 다수 게재되었다. 그러나 장로교회는 1918년 3월 「신학지남」이 창간된 이래 1930년대 초까지 선교사들이 편집과 집필을 주도하였다. 창간시부터 1920년까지는 왕길지(G. Engel)선교사가, 1921년부터 1927년까지는 배위량(W.M. Baird)선교사가 각각 편집인으로 일했다. 그러다가 남궁혁(1882-1950)이 미국 유학에서 돌아와 1927년 평양신학교에 신약학 교수로 취임하여 최초의 한국인 교수가 되었고, 다음해인 1928년부터 「신학지남」의 편집인이 되었다. 이 당시 주요 집필자들은 소안론(W. L. Swallen), 어도만(W.E. Eerdman), 배위량(W.M.Baird), 라부엘(R.L. Robert), 민로아(Mrs. F.S. Miller), 도이명(C.S. Deming), 기이부(E.M.Cable), 하리영(R.A. Hardie), 이눌서(W.D. Reynolds), 콕안련(A.D. Clark) 등 선교사들이었다.

원두우(H.G Underwood, 1859-1916), 배위량(W.M. Baird, 1862-1931), 마포삼열(S.A. Moffett, 1864-1939), 왕길지(G. Engel, 1868-1939), 콕안련(C.A. Clark, 1878-1961), 이눌서(W.D. Reynolds, 1878-1951) 등이었다. 이들의 신학은 보수주의 혹은 개혁주의적이었다. 따라서 1884년 미국선교사들의 도래에서 1920년대 중반까지 약 40년간의 초기 한국교회의 신학이란 주로 선교사들의 신학을 말한다.

1920년대 이전에 내한하였던 선교사들의 신학은 대체적으로 보수적이며 복음적이었고, 장로교 선교사들의 경우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WCF)를 따르는 역사적 기독교 신앙 혹은 개혁주의 사상을 신봉하는 자들이었다는 점에는 거의 모든 논자들의 견해가 일치한다.¹⁰⁾ 미국북장로교 해외선교부(Board of Foreign Missions of the Presbyterian Church, U.S.A.)의 총무였던 브라운(A. J. Brown)의 논평은 이 점을 확인시켜주고 있다.¹¹⁾ 한국교회의 초기 신학에 대해서는 ‘철저한 근본주의’, ‘정통적 복음주의’, 혹은 ‘경건주의적 복음주의’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됐지만 자유주의 신학을 배격하는 보수주의 신학이었음에 틀림이 없다. 이점은 1890년에 내한한 마포삼열(Samuel A. Moffett, 1864-1939)의 기록에서도 확인된다.¹²⁾

1-) H. Conn, 26ff; Chun Sung Chun, *Schism and Unity in the Protestant Churches in Korea*, (Ph.D Thesis, Yale University, 1955), 67.

11) 브라운은 1911년 이전의 주한 선교사들의 신학적 견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바 있다. “개국 이후 첫 25년간 내한한 선교사는 전형적인 푸리탄형의 선교사였다. 이들은 1세기 전 그들의 조상들이 뉴 잉글랜드에서 처럼 안식일을 지켰으며, 술이나 담배, 그리고 카드놀이에 기독교 신자들이 빠져서는 안 될 죄라고 보았다. 신학과 성경 비평에 대해서는 그들은 철저히 보수적이었으며 그리스도의 제림을 확신했고 저들은 자유주의 신학을 배격했다.” A. J. Brown, *The Mastery of the Far East*, (Scribners, 1919), 540.

12) 그는 첫 25년간(1884-1909)의 한국선교를 회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바 있다. “선교부와 교회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투철한 신념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로부터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메시지를 믿는 열성적인 복음정신으로 특징 지워질 수 있다.” H. Conn, 27.

그러나 1920년대 중반을 거쳐 가면서 '다른 전통'의 신학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곧 원산을 중심으로 전개된 신비주의 운동과 일본에서 유입된 무교회주의¹³⁾ 그리고 진보적인 신학이었다.¹⁴⁾ 흔히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불리는 이 진보적인 신학은 미국교회의 근본주의와 현대주의의 논쟁(Fundamentalist vs. Modernist Controversy), 미국장로교회의 신학적 변화의 영향을 받은 결과이지만, 하비 콘의 지적처럼 일본을 통한 신학의 영향, 그리고 캐나다연합교회 선교사들의 영향 또한 없지 않았다. 물론 1930년대 이전에도 캐나다 연합교회의 선교지역에서 보수주의 신학에 대한 비판과 저항이 없지 않았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역적 한계 안에 있었다. 그러나 1930년대 초부터 진보적 신학은 한국장로교회 총회에서 문제시되기 시작하였다.

그 첫 변화가 성경관에서 나타났다. 성경관의 변화는 신학적 변화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표라고 볼 때 이것은 한국장로교 신학을 보여주는 중요한 변화였다. 완전 영감설(完全靈感說)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성경 비평학이 도입되었다. 1934년 모세의 창세기 기록설이 부인되었고, 고린도전서 14:33-34절 해석과 관련하여 여권(女權) 문제가 제기되었다. 또 아빙돈 단권 성경주석사건(1935)을 중심으로 신학적 견해차가 분명하게 노정되었다. 김양선은 "1934년 제23회 총

13) 무교회주의는 우찌무라 간조(内村鑑三)의 제자들인 김교신(金敎信, 1901-1944), 함석헌(咸錫憲, 1901-1989) 등 6인이 일본유학에서 돌아온 1927년부터 한국에 소개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무교회주의는 경남 일우(특히 김해지방)에서는 신진리파(新眞理派)란 이름으로 나타났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우찌무라 간조의 책이 없는 목회자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의 책은 한국인 목회자들 사이에 폭넓게 읽혀졌다.

14) 이 신학을 흔히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말하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그것을 19세기 이후 독일에서 발전된 '자유주의 신학'과 동일시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기존의 신학과는 다른 '진보적 신학'이라고 명명해 본다.

회에 제소된 성경의 고등비평과 자유주의 신학은 전교회적으로 문제화 된 최초의 사건"이라고 평가했다.¹⁵⁾

서울 남대문교회 목사였던 김영주(金英珠)목사에 의해 제기된 창세기의 모세 저작설 부인과 함경북도 성진(城津) 중앙교회 목사였던 김춘배(金春培)목사에 의해 제기된 여권문제, 곧 고린도전서 14장 33-34절의 해석문제에 대해 장로교 총회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선교사 라부엘(R. L. Robert)은 위원장이었고 박형룡은 서기였다. 박형룡은 비록 서기였으나 조사위원회의 활동은 그에 의해 주도되었다.¹⁶⁾ 이때로부터 박형룡은 신학적 문제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인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총회는 다음과 같은 조사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창세기가 모세의 저작이 아니라고 하는 반대론은 근대의 파괴적 성경 비평가들이 주장하는 이론인바 그들은 과연 창세기의 모세 저작을 부인하는데 몇지않고, 오경전부를 모세의 저작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모세시대로부터 여러 세기 후대 어떤 인물들이 기록한 위조문서로 돌립니다... 그러므로 조선 장로교회 안에서 창세기를 모세의 저작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목사들은 창세기만이 아니라 오경 전부 내지 신구약 성경 대부분의 파괴를 도모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성경의 권위와 그리스도의 권위도 무시하며 능욕하는 사람이니 '신,구약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문에

15) 김양선, 178.

16) 김양선, 189; 김영재, 「한국교회사」(이레서원, 2004), 203; 유동식, 188

대하여 정확 무오한 유일한 법칙이니라 (조선 예수교 장로회 신조 21조)고 믿고 가르치는 우리 장로교회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 교회 제1조를 위반하는 자이므로, 우리 교회의 교역자됨을 거절함이 가합니다.¹⁷⁾

여권문제에 대한 보고서에서는,

사도바울이 고린도전서와 디모데전서에서 여자의 교회의 교권을 불허한 말씀은 2천년전의 한 지방교회의 교훈과 풍습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성경의 파괴적 비평을 가르치는 교역자들과 성경을 시대사조에 맞도록 자유롭게 해석하는 교역자들은 우리 교회 교역계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총회는 각 노회에 명령하여 교역자의 시취문답(試取問答)을 엄밀히 하여 조금이라도 파괴적 비평이나 자유주의적 해석방법의 감화를 받은 자는 임직을 거절케 할 것이오며, 이미 임직을 받은 교역자가 그런 교훈을 하거든 노회는 그 교역자를 권징조례 6장 42조, 43조에 의하여 처리케 할 것입니다.¹⁸⁾

라고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 여기에는 박형룡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되었는데, 이 보고는 총회에 의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이에 관련된 두 목사가 사과함으로써 이 사건은 일단락되었지만 한국장로교회에서 박형룡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다.

또 1935년 장로교 총회에서는 감리교의 유형기 편집으로 간행된

17) 김양선, 180-181.

18) 김양선, 184.

「아빙돈 단권주석」(Abingdon Bible Commentary)이 문제시되었다. 1930년 미국의 감리교 출판사인 이빙돈사가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영어권의 학자 66인이 집필한 이 주석을 감리교회가 1934년 출판했는데 채필근, 김관식, 문재린, 김명선, 한경직, 윤인구, 김재준, 그리고 송창근 등 장로교목사들이 번역에 참가한 것이 문제였다. 박형룡은 장로교 목사가 이 번역에 참여한 사실만으로도 문제가 된다고 보았다. 그는 "... 성경을 파괴적 고등비평의 원리에 의해 해석하였으며 계시의 역사를 종교진화론의 선입견을 가지고 고찰하였다"고 평가하고 여러 가지 신학적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당시 영계의 지도자로 추앙받던 길선주 목사는 그 주석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의해 집필된 점을 지적하고 번역에 참여한 장로교목사들은 엄중한 책임을 물어 후일의 경계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때에도 장로교 총회는 "신생사 발행 성경주석에 대해서는 그것이 우리 장로교의 교리에 위배되는 점이 많으므로 장로교회로서는 구독치 않을 것이며 동 주석에 집필한 본 장로교 교역자에게는 소관 교회로 하여금 사실을 심사케 한 후 그들로 하여금 집필의 시말을 기관지에 표명케 할 것이다"고 결의함으로써 박형룡은 보수적 신학의 옹호자이자 파수자로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 박형룡은 이 건과 관련한 조사위원회에서도 중심 역할을 했다. 그는 이런 신학적 변화에서 정통신학을 견지하고 이를 변증하고자 했다. 문제는 이 사건은 한국장로교회에서 신학적 양극화를 선명하게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이 때 주석번역에 참가했던 이들이 후일 진보적 운동의 중심인물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은 한국에서의 보수와 진보의 경계선을 긋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이제 박형룡은 한국장로교회에 대두되는 새로운 신학운동에 대해 민감하게 조응(照應)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을 겪어갔다.

1930년대 초 한국장로교 총회에서 문제시됐던 신학적 문제는 박형룡의 생의 여정과 신학활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당시 대표적인 신학자로서 박형룡은 남궁혁이나 이성휘에 비해 보다 철저하게 보수적이었으며 변증학으로 무장되어 있었다. 박형룡은 한국교회를 진보적인 신학의 도전으로부터 지켜가야 한다는 심리적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게 되고, 이 때부터 적극적으로 한국장로교회의 본래적인 정통주의 신학을 파수하려고 진력하게 된다.

특히 그가 1920년대 미국에서 일어난 '자유주의-근본주의' 논쟁의 전말을 알고 있었기에 더욱 그러했다. 박형룡의 싸움은 미국에서의 메이첸의 그것과 유사했다. 이런 점에서 한승홍은 박형룡은 4가지 면에서 메이첸의 영향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즉 박형룡은 1) 극단적인 보수주의와 배타적이고 변증적인 신학방식, 2) 알렉산더, 하지, 워필드, 메이첸으로 이어지는 근본주의적이며 칼빈주의적인 정통주의, 3) 신학논쟁에서의 강한 반론과 비판 능력, 4) 교단분열과 신학교 설립의 선례가 그것이다.¹⁹⁾ 구체적인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메이첸의 영향을 받은 것은 분명하다. 박아론은 박형룡을 가리켜 "한국의 메이첸"이라고 말함으로써²⁰⁾ 이 점을 인정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보면 박형룡이 변증학을 전공하게 된 일이나 메이첸의 문하에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은 1920년대의 미국교회의 신학적 변화에서 한국교회를 유추해 보고, 한국교회의 신학적 상황에서 미국교회를 조망해 보는 반성적 성찰의 결과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19) 한승홍, <정통보수주의 신학사상(1)> 「복회와 신학」(1990.10), 200.

21) 장동민, 「박형룡의 신학연구」(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8), 86

그에게는 변증과 옹호가 중요한 사상적 맥이었고, 그가 「기독교 근대 신학 난제 선포」에서 말한바와 같이 "신학사상의 바른 자와 그른 자를 획별차천명(劃別且闡明)"하는 것을 교회를 위한 사명으로 이해했다. 1930년대 이후 점차 대두되던 이런 신학운동은 총회 차원의 결정이나 사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 발전되어 장로교 안에는 자연히 보수와 진보의 경계선이 뚜렷해졌다.

이렇듯 박형룡은 1930년대 이래로 정통주의 혹은 보수주의라고 일컬어지는 한국교회의 신학전통을 기초 놓고 이를 파수하며 계승해 가는 50년간의 변증과 대결과 투쟁의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된다. 이런 일들을 계기로 박형룡은 "보수신학의 파수자," "정통 신학의 기수" 등과 같은 별명을 얻게 되었다. 더욱이 그의 이런 입장은 김재준과의 토론을 통해 더욱 굳어지게 된다.

3. 박형룡과 김재준

박형룡의 김재준과의 대결과 토론은 그를 보수주의 신학자로서의 뚜렷하게 각인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박형룡은 이 사건을 계기로 보수신학자 대변자이기를 자처했다. 김재준과 박형룡과의 인간관계, 신학적 견해 차, 그리고 두 사람이 속한 교회조직(치리회)의 역학관계가 향후 한국교회와 신학의 행방을 가름하는 지표였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이 두 사람의 삶의 여정이 이처럼 큰 결과를 가져올 줄은 예견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박형룡은 압록강변 산골에서 출생했지만 김재준은 두만강변 산골

에서 출생했다. 함경북도 경흥군 오아지읍 창동에서 출생한 김재준은 박형룡과 마찬가지로 유교적 전통교육을 받았다. 그의 나이 20세 때 고향을 떠나 서울로 이거하였고, 박형룡과 마찬가지로 김익두목사의 영적 감화를 받았다. 김재준은 송창근의 안내로 일본 아오야마(青山學院) 신학원에서 3년간(1925-1928) 유학하게 되는데 이 때 김재준은 소위 진보적인 신학을 접하게 된다. 그가 졸업논문으로 “바르트의 초월론”을 쓴 것을 보면 자유주의 신학에 도전한 바르트에 흥미를 느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²¹⁾ 김재준은 다시 송창근의 인도로도 미하여 프린스턴 신학교에 입학했다. 이 때가 1928년 9월의 가을학기였다. 이 때 김재준은 아오야마에서와는 달리 보수적인 교수들, 특히 메이첸의 강의를 듣고 그의 저서를 ‘빠짐없이’ 읽었다고 한다.²²⁾ 이곳에서의 기간이 길지 못했으나 그의 신학적 성격을 결정하는데 주요한 시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김재준은 메이첸 등 보수적인 인사들을 접했으나 근본주의 신학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다. 청산학원에서 진보적 신학을 접했으나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드러냈다. 즉 그는 극단적인 근본주의도, 극단적인 자유주의도 거부했다. 프린스턴에서 1년을 보낸 뒤 김재준은 송창근을 따라 피츠버그의 웨스턴신학교(Western Theological Seminary)로 가 1929년 9월 2학년에 편입했다. 여기서 구약을 전공하고, “오경비판과 주전 8세기 예언운동”이란 제목의 논문으로 신학석사(STM) 학위를 받고 1932년 졸업하고 그 해에 귀국하였다.

김재준이 귀국 후 남궁혁은 그를 평양신학교 교수로 추천했으나

21) 천사무엘, 「김재준」(살림, 2003), 67.

22) 「김재준 전집」 제13권, 104-5.

박형룡의 반대로 이루어 지지 못했다. 교수로 채용되지 못한 김재준은 1930년대의 대부분을 평양 송인고등학교(1933-36)와 간도 용정의 은진중학교(1936-39) 성경교사로 일했다. 그러나 그는 당시 「신학지남」의 편집인이었던 남궁혁의 배려로 송창근, 채필근, 한경직과 함께 편집동인으로 가담하면서 「신학지남」의 정규 기고자가 되었다. 김재준은 신학교수로 채용되지 못했으나 「신학지남」을 통해 평양신학교와 간접적인 접촉을 하게 되는데, 이 점을 박형룡은 못마땅하게 여겼다.

박형룡과 김재준 간의 대립을 야기한 직접적인 동기는 「신학지남」에 게재된 김재준의 논문이었다. 이제 이 두 사람은 인간적인 갈등을 넘어 신학적 견해차로 대립하게 된다. 김재준은 1933년부터 35년까지 8편의 논문을 기고하였는데²³⁾ 김재준은 욥, 예레미야, 아모스 등에 대한 논문에서 역사비평학을 수용했던 당시 구미학계의 연구경향을 소개한 것이었다. 오늘의 관점에서는 문제시 되지 않지만 1930년대의 한국교회적 상황에서 볼 때 그것은 역사적 기독교 신앙과 다른 학설이었으므로 문제시될 수 있었다.

김재준의 논문 중에서 특히 문제시 됐던 것은 “이사야의 임마누엘 예언연구”로서 이 논문은 이사야서 7장 14절을 주석한 글이었다. 이 글에서 김재준은 ‘동정녀’로 번역된 히브리어 ‘알마’는 ‘방년의 젊은 여자’를 가리키며, ‘잉태’로 번역된 히브리어 ‘히랴’는 히브리어 상

23) 김재준의 8편의 논문은 다음과 같다. <욥기에 현한 영혼불멸>(15권 3호, 1933), <전기로 본 예레미야의 내면생활>(15:5, 1933), <아모스의 생애와 예언>(15:6, 1933), <이사야의 “임마누엘” 예언 연구>(16:1, 1934), <실론의 탐구>(16:5, 1934), <백만운동과 그 비판>(17:1, 1935),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연구>(17:1, 1935), <위대한 종결-예레미야의 최후>(17:3, 1935).

태동사 '하리'의 분사형이므로 '알마'의 형용사 역할을 한다고 해석했다. 즉 이 본문은, "인태한 방년의 젊은 여자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번역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 논문이 발표된 1934년은 장로교 총회에서 최초로 신학적 문제가 제기된 때로서 박형룡의 입장에서 볼 때 김재준의 입장은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되었다. 편집위원으로 있던 박형룡은 편집인 남궁혁에게 사표를 제출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김재준의 신학적 견해에 이의를 제기했다. 결국 김재준은 1935년 5월호를 끝으로 「신학지남」에 더 이상 글을 쓸 수 없게 되었다. 김재준은 자신의 독자적인 잡지 「십자군」을 창간하였고, 1940년에 설립된 조선신학교를 통해 자신의 신학을 광포하기 시작한다.

김재준과 박형룡간의 대결은 시작에 불과했다. 1947년 다시 대립하게 되고 그 긴장은 그 이후 계속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박형룡은 보수적 정통주의 신학자로, 김재준은 진보적 자유주의 신학자로서 확고한 위치에 서게 된다. 서로가 대립함으로써 서로의 위치를 굳혀갔다. 박형룡은 더욱 보수화되어 갔고, 보수주의에 대한 김재준의 태도는 더욱 전투적으로 변해갔다. 김재준이 "정통신학은 신신학보다 더 교묘하게 위장한 실제적 인본주의요 정통적 이단이다"²⁴⁾ 라고까지 말한 것은 박형룡에 대한 감정적인 저항이었다.

김재준과 박형룡의 논쟁은 양자에게 동일한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것은 자기 신념의 고정화 내지는 심화(深化)였다. 톨스토이가 비유

적으로 말한바 있듯이 철은 때리면 때릴수록 더 단단해 지고, 자기 주장이 공격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주장에로의 심화현상을 가져오는 것은 심리적 저항의 결과이다. 사실 김재준은 박형룡이 지적하듯이 '과 괴적인' 인물이 아니었다. 젊은 신학도로서 그는 단지 당시 학계의 연구 성과를 소개하고자 하는 의도였다. 흔히 김재준을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말하지만 1930년대의 그를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부르는 것이 바른 것인가를 정직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말할 때 19세기 독일에서 리츨이나 슐라이어마허로부터 기원된 신학사조를 말하는데, 김재준은 이런 신학을 추종하지 않았다. 그는 자유주의 신학은 "악마에게 절하고 천하를 얻으려는 식이어서 애초부터 지고 들어가는 싸움"이라고 말함으로써 자유주의를 비판했던 것이다.²⁵⁾ 1930년대 그의 신학이 신정통주의에 근사함이 있으나 한국적 보수적 성향의 없지 않았다. 그러나 박형룡과의 대결에서 김재준은 점차 '자신의 길'로 점차 더 깊이 빠져들기 시작하였고, 박형룡의 비판처럼 보다 진보적 신학자로 변모되어 갔다. 이 점은 1930년대 이후의 그의 삶과 학문의 여정 속에 드러나 있다.

박형룡 또한 그러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근본주의자로 불린다. 박형룡 자신도 근본주의자로 인식했다. 물론 근본주의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와 박형룡이 이해했던 근본주의가 무엇이었던가를 고려해야 하는데, 박형룡이 이해했던 근본주의는 처음부터 반문화적인 부정적인 의미의 근본주의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자신이 말하는 근본주의를 정의하면서 "근본주의는 별다른 것이 아니라 정통주의요 정통파 기독교"라고 보았을 뿐이었다.²⁶⁾ 즉 그는 근본주의를 자유주

24) 김양선, 199.

25) 천사무엘, 18-9.

26) 박형룡, <근본주의> 「신학논문」(하), 280.

의적이 아닌 정통신학으로서 보다 포괄적인 것으로 이해했음을 알 수 있다. 장동민은 1920-30년에 박형룡에게는 부정적인 의미의 근본주의자라고 볼 수 있는 특징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변호한다.²⁷⁾ 말하자면 처음부터 그는 분리주의적이거나 반 문화적이지 않았다. 그러나 김재준과의 대립과 대결을 거쳐 가면서 박형룡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근본주의적인 성향은 더욱 심화되어 갔다.

그는, 물론 후기의 일이지만, 심지어는 건실한 복음주의 단체로 간주되는 NAE와 WEF까지도 새로운 '자유주의' 요 '이단'이며, '용공적' 이라고 부정하고 극단적 보수주의자이자 분리주의자였던 칼 메킨 타이어의 ICCM만을 인정했다.²⁸⁾

1970년대 이후 한국사회 현실에 대해 김재준이 보여주었던 적극적 참여와는 달리 박형룡의 적극적 무관심은 김재준에 대한 심리적 반감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1970년대 한국사회에서 민주화 운동이 줄기차게 전개되고 있을 때, 박형룡이나 합동교단의 목소리는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고, 때로는 침묵함으로써 권력의 그늘 아래 안식하고 있었다. 민주화에 대한 김재준의 관여는 부당한 정치관여로 간주했다.

결과적으로 이 두 사람간의 대립으로 한국교회의 신학적 차이는 분명해 졌고, 양 극단으로 자행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제 박형룡은 한국보수주의 신학, 혹은 정통신학의 수호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그의 신학은 방어적 근본주의 성격을 띠게 된다.²⁹⁾ 박형룡의 김재준과의 대결을 통해 보수신학자로서 혹은 보수

27) 장동민, 124.

28) 장동민, 382.

신학의 파수자로서 박형룡의 위상은 확고해 졌다.

4. 박형룡과 한상동

1930년대 후반기에 와서 보수적 신학이 퇴조하고 자유주의 신학이 그 지경을 넓혀 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 시작한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신사참배 강요였다. 신사참배 강요는 결과적으로 한국교회의 보수주의적 신학의 퇴조를 초래하였고, 보수주의적 인사들의 주도권이 친일적 진보적 인사들에 의해 대체되었다. 이런 신학 변화를 다음의 3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장로교의 유일한 신학 교육기관이자 보수주의 신학을 견지하던 평양의 장로교 신학교의 폐교(1938), 둘째, 보수적인 교회 지도들의 투옥과 망명, 셋째, 한국 교회의 신학에 영향을 끼쳤던 보수적인 선교사들의 출국 혹은 추방(1941)이 그것이다. 따라서 보수주의 신학은 힘을 상실하였고 진보적 인사들이 한국교회의 주도권을 잡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를 김양선은 "보수진영이 붕괴되매 저들의 손에 유지해 오던 교권은 자연히 종래 일본에서 신학 혹은 고등교육을 받은 교역자들에게로 옮겨가게

29) 정경옥(1901-1945)의 "조선 기독교 신학사상의 동향"이란 글에서 조선신학의 보수진영의 대표자로 장로교의 박형룡과 감리교의 변홍규를 들고 있으며, 변홍규 박사를 '경건한 주지론자' 로, 그리고 '신앙은 보수요 신학은 신진' 이라고 할 인물로 경남의 윤인구, 연진(延尊)의 갈홍기, 이전(梨專)의 김영의, 부산진의 송창근, 간도의 김재준을 들고 있다. 그리고 바르트신학에 기울어진 분으로 복음교회의 최태용, 갈홍기 그리고 정경옥 자신을 칭하고 있다. 특히 박형룡을 가리켜 '직업적인 칼빈주의자이며 소위 미국 근본주의의 대언자' 라고 했다. <기독교신문> 제20호 (1939, 12월호).

되었고, 따라서 자유주의신학 내지 일제의 탄압에 따르는 일종의 변질된 신학사상이 출현하게 되었다.”³⁰ 고 지적했다.

1940년의 조선신학교의 설립은 이런 변화의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김재준, 송창근(宋昌根), 윤인구(尹仁駒) 등은 서울 승동교회에서 1940년 4월 조선신학교(朝鮮神學校)를 개교하게 되는데, 이미 있던 신학교가 폐교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신학교가 개교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중심 인사들이 일제의 정책에 순응적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말하자면 조선신학교는 처음부터 일제와의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 성격을 지니게 된 것이다. 김재준은 ‘선교사 집권 시대’는 끝났다고 주장하고 신학과 신학교육의 주류를 내세웠는데, 이것은 비록 본의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세계교회로부터의 한국교회를 이탈시키고자 했던 일제의 정책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김재준은 평양 신학교의 교육이념과 전통을 전적으로 개혁할 것을 말하면서, “조선 교회의 건설적인 실체면을 고려에 넣는 신학”을 강조했는데,³¹ 이것은 한국교회의 기존의 신학전통으로부터의 이탈을 의미했다. 이 조선신학교는 1940년대 보수주의 신학의 폐허 위에서 자유주의 신학의 기반을 다져갔고, 해방 후 조선신학교는 ‘남부총회’에 의해 한국 장로교 직영신학교육기관으로 승인(1946. 6)받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고려신학교가 1946년 9월 부산에서 개교하였다. 타협주의적인 자유주의자들에게 한국교회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확신이 고려신학교 설립의 주된 동기였다. 특히 남부총회가 조선신학

30) 김양선, 192.

31) 김양선, 194.

교를 장로교 직영신학교로 가결했을 때, 평양의 장로교신학 전통을 잇는 새로운 신학교 설립은 시급한 과제였다. 그래서 교사(校舍)나 교수, 도서관 등 그 어느 것도 갖추지 못한 채 고려신학교를 설립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고려신학교는 자유주의를 반대하는 개혁주의 신학의 확립을 신학교 설립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었다.³²

개혁주의 신학을 통해 교회를 바로 세우려는 신학입교(神學立教)는 설립자인 주남선과 한상동의 의지였으나, 이 두 사람은 이를 실행할 수 있는 학문적 기초를 갖추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박형룡박사를 교장으로 모시는 일은 개혁주의 신앙의 계승과 보지라는 점에서 현실적 요청이자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다. 박형룡의 귀국이 늦어지자 박윤선을 임시 교장으로 개교했으나, 만주에서 귀국한 박형룡은 1947년 10월 14일 부산 중앙교회당 고려신학교 교장으로 취임했다. 박형룡이 <사도적 신학 소론>이란 제목의 교장 취임 강연에서 정통신학 확립을 역설했을 때 그것은 신학적 출애굽의 출정식을 방불케 하는 것이었다. 이 때는 김재준, 송창근, 정대위교수의 신학에 반발하여 조선신학교를 자퇴한 34명이 고려신학교에 편입한 때였다. 따라서 새로운 신학교육에 대한 환영과 기대는 박형룡의 위치를 확인해 주었다.

32) 한상동과 주남선은 고려신학교가 추구하는 신학적 이념은 개혁주의 신학임을 분명하게 표명하였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임을 믿고 그대로 가르치며 또 장로교원본 신조서인 웨스터민스터 신조개요서의 교리대로 교리와 신학을 가르치고 또 지키게 하여 교리와 및 생활을 순결하게 할 목사 양성을 이념과 목적으로 하고 현하 한국교회에 거대 신학자인 박윤선목사를 교장으로 추대하고 .. 칼빈적 개혁파의 사상 그대로 생활하도록 노력하여 왔고, 앞으로 더 일층 노력하려고 하는 바입니다. 주남선, 한상동, 「대한 예수교 장로회 성도들앞에 드림」(출판 및 연대 미상), 1-2.

교장으로 취임한 박형룡과 한상동 사이에 이견이 노출되기 시작했다. 적어도 이 이견의 표면적인 이유는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는 고려신학교의 총회 승인 문제였다. 노회와 총회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신학교육을 반대했던 박형룡은 고려신학교를 한국 교회를 배경으로 총회 직영의 총회 신학교로 승격시키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었다. 이 점은 1947년 12월 9일 경남노회 제49회 정기 노회가 부산 광복교회당에서 모였을 때 밝혔던 신학교운영 방침 속에 잘 나타나 있다. “본 신학교는 이사회와 후원회를 조직하여 전국교회의 원조를 얻는 동시에 적당한 시기에 총회에 청원하여 총회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이 때는 교장으로 취임한지 아직 두 달이 되기 전의 일이었다. 그의 이런 생각은 그가 교장으로 취임하기 전부터 바랐던 바였다. 한상동은 이 점에 동의하면서도 그 시기(時期)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고려신학교는 교회 쇄신의 사명을 공감하는 몇몇 개인의 소명 의식에서 시작된 것이지 당시 장로교회의 총의를 거쳐 설립된 학교가 아니었다. 따라서 이 고려신학교는 총회의 처리와 교권 밖에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이 신학교를 총회와 교권 밖에 둬으로서 신학의 순수성을 보존하려는 데 그 뜻이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한상동은 고려신학교의 총회승인 문제를 시기상조로 파악했던 것이다. 왜냐하면 아직도 장로교회 안에는 일제 하에서의 범과에 대한 자숙이 시행되지 않고 있고, 진보적 인사들이 여전히 회원으로 남아 있어 저들이 교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어렵게 시작된 교회 쇄신이 퇴색되지 않을까 염려했다. 그러나 박형룡은 신학교육은 개인의 소명이라는 점보다는 교회적 과제로 파악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결국 한상동과 박형룡의 현실을 보는 시각의 차이였다

둘째는 박형룡은 당시 고려신학교와 관계를 맺고 있는 한부선 등

소위 ‘메이켄파’로 불리는 정통장로교(OPC) 선교사 외에도 주한 4장로교 선교부와의 관계와 교류를 희망했다. 그러나 한상동은 자유주의적 신학을 수용하는 다른 선교부와의 관계를 거절했다. 그것은 보수주의적인 신학교 운동이 자유주의 신학을 부분적으로라도 수용하는 선교부에 의해 훼손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셋째로 박형룡은 고려신학교가 전국 교회를 배경으로 하고 총회적 인준을 얻기 위해서는 학교를 서울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상동은 과거에 평양신학교가 서울이 아닌 평양에 있었지만 장로회 신학교로 존속했던 경우를 예로 들면서 고려신학교의 서울 이전을 반대하였다.³³⁾

박형룡과 한상동 양자는 신학교육의 쇄신을 통한 교회재건에는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이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과, 당시 교회를 보는 시각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박형룡은 한상동을 중립한 인사들의 철저한 자숙과 재건 원칙이 사실상 실행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전의 고려신학교 인사들의 입장을 완화하여 전국 교회와 미국 남·북 장로교, 호주 장로교, 캐나다 장로교 등 4선교부와의 협상을 희망하고 있었다. 이 점은 그가 “... 권징보다는 복음 전파자 양성에 주력해야 한다.”고 했던 고려신학교를 떠날 때의 고별설교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암시되고 있다.³⁴⁾ 즉 철저한 자숙과 영적 갱신은 일단 뒤로하고, 전국 교회를 수용하는 신학 교육을 우선시 했던 것이다.

33) 이상규, <교회재건운동과 고신의 형성, 1945-1952> 「논문집」(고신대학교) 12호(1984), 187.

34) 이상규, 187.

두 사람 간의 차이는 현실 인식의 차이였고, 현실 인식에 있어서 박형룡은 한상동보다 타협적이었다. 이 현실 인식의 차이는 박형룡의 귀국 소감 속에 이미 드러나 있다. 박형룡은 귀국인사 겸 소감에서, “춘풍추우 10년간 이역에 유리하다가 조국강토에 발을 들여놓으니 금수강산의 경색(景色)이 반갑고 백의동포를 면목(面目)이 더욱 반갑습니다”라고 인사하고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 금일 전 세계의 기독교회는 전후 피곤으로 지리멸렬하여 일대부흥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조선교회는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동서양 여러 교회에서 부흥의 방법이 여러 가지로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십니다. 전후 피곤이 심한 우리 교회는 겸손과 자기 부족을 깊이 반성하는 통회로서 부흥의 은혜를 고대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전파의 대사업에 합심 협력하여 해방조선의 기독교회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비록 전후피곤이 있으나... 이 자유를 충분히 이용하여 복음전도에 일일(一日)이라도 속히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에 더 많은 수의 전도자를 양성함은 우리 교회의 급무이고 그들의 전도의 효능이 많기 위하여 성경적 복음적인 신학교육이 극히 필요합니다.³⁵⁾

이 귀국소감에서 박형룡은 해방된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 복음전도의 긴박성을 강조하고 전도사 양성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지만,

35) 기독교청년 편집회 경남연합회, 「면려청년」(1947.11.15); 이상규 188-9.

자유주의나 친일적 교권주의에 반대하여 투쟁해 온 고려신학교를 중시한 인사들의 고투를 거의 의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 도리어 해방 후의 한국사회와 교계의 모습은 단순히 “전후(戰後) 피곤”으로 표현함으로써 조선신학교의 현존에 대항하려는 고려신학교 인사들의 기대에 미흡했다. 이 짧은 귀국 소감에서 “전후피곤”이란 말이 4번이나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그의 현실 인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현실 인식의 차이는 사실은 그의 귀국 시부터 분명하게 노정되고 있었다. 이 견해 차 때문에 박형룡은 1948년 4월 고려신학교 교장직을 사임했다. 그가 교장으로 취임한지 불과 6개월도 되지 않았을 때였다. 이것은 박형룡과 한상동의 결별을 의미했다.

고려신학교를 떠난 박형룡은 상경하여 그해 6월 새로운 신학교를 개교하여 임시교장에 취임했다. 조선신학교에서 박형룡을 따라 고려신학교에 편입해온 대부분의 학생 등 당시 고려신학교 학생 반수 이상이 박형룡의 뒤를 따라 서울로 옮겨갔다.

박형룡이 한상동과 결별하게 된 것은 현실인식 외에도 서울에서 새로운 신학교를 개교하고자 했던 이들의 요구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³⁶⁾ 박형룡이 귀국하여 부산 고려신학교로 부임하기 이전에 서울에 있는 전(前)평양신학교의 이사들을 비롯한 반 조선신학교 인사들은 조선신학교와 다른 보수주의 신학교의 재건을 희망했

36) 만주에서 귀국하여 서울에 체류하던 중 박형룡과 이정로목사, 이환수목사와의 접촉, 그리고 1947년 진정서 사건으로 조선신학교를 자퇴한 신앙동지회의 이성권, 엄두섭, 이치복, 이노수, 손치호 등의 박형룡과의 만남에 대한 단편적인 기록으로 정규오, <나의 신학, 신앙, 인격의 모델>, 「죽산 박형룡 박사의 생애와 사상」, 박용규편, 189를 참고할 것.

고, 박형룡에게 구 평양신학교의 복구, 재건을 제안하기도 했다. 박형룡이 귀국했을 때는 김재준에 대한 진정서 사건이 있는 지 5개월 후였는데, 당시 교계는 김재준교수에 대한 진정서 사건으로 새로운 보수주의 신학교를 열망하고 있었다.³⁷⁾ 그러나 박형룡은 고려신학교의 교장으로 초빙을 받고 귀국하였으므로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분명한 사실은 그는 부산이 아닌 서울에서 보다 광범위한 교회의 지원을 받는 신학교육기관의 설립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는 비록 고려신학교 측의 인사의 도움과 협조로 귀국하였으나 그의 마음속에는 서울에서의 부름에 더 큰 애착을 갖고 있었다. 박형룡은 부산,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교회재건운동, 그리고 이들에 의해 시도되는 신학 교육기관, 곧 고려신학교운동에 적극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 이점 때문에 그는 고려신학교 교장으로 취임하지 불과 6개도 안되어 교장직을 버리고 상경하게 되었던 것이다. 현실 인식의 차이는 이름 그대로 견해 차이였을 뿐이었고, 그로 하여금 고려신학교를 떠나게 했던 보다 직접적인 동기는 귀국 후 접촉했던 인사들과의 새로운 신학교 개교였다.

박형룡이 서울로 가게 된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긍정적인 면에서 볼 때 (시행되지도 못할 권징을 주장하기 보다는) 해방 후 제기되는 보수적인 신학교육에 대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조선신학교와 다른 신학교육을 의미했고,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대결로서 보수주의 신학을 확립하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박형룡은 다시 김재준과 대결하면서 보수주

37) 김양선, 227.

의 신학을 확립해 간다. 그 이후의 역사적 추이를 보면 박형룡 개인의 의도가 그러했던가와 관계없이 박형룡과 김재준은 어느 정도 세력을 유지하면서 각기 다른 신학적 전통을 수립해 가게 된다.

박형룡 개인으로 볼 때 부산 고려신학교에서 OPC와의 관계를 통한 제한된 활동 보다는 서울에서 활동이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해 가는데 있어서 보다 유리했을 것이다. 동시에 기왕의 보수신학자로서의 그의 한국교회적 위상을 확립하는 일에도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박형룡의 사임과 한상동과의 결별은 한상동 개인이나 고려신학교에 만이 아니라 한국교회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 변화를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반(反) 조선신학교적인 범 보수적인 한국장로교회의 중심이 박형룡을 중심으로 재편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즉 신학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반조선신학교, 반고려신학교 인사들의 결집을 가져왔다는 점이다.

둘째, 박형룡이 고려신학교와 결별함으로써 한상동을 비롯한 고려신학교 인사들은 한국의 대표적인 보수 신학자인 박형룡도 수용하지 못하는 독선적 인물 혹은 집단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는 점이다. 즉 한상동을 비롯한 교회쇄신의 노력은 분리주의적인 독선적인 분파 운동이라는 오해를 낳게 했다. 이 점은 박형룡이 고려신학교와 결별한 후 제기된 고려신학교 측에 대한 비난 속에 잘 드러나 있다. 즉 이때부터 고려신학교 측에 대한 반대와 비난은 더욱 거세졌고 경남노회는 중요하기 시작하였다.

박형룡의 고려신학교 이탈 이후부터 경남노회, 그리고 한국 장로교회에서 주된 논쟁점은 '신사참배 문제'가 아니라 '고려신학교 문제'로의 변화가 나타났다. 고려신학교 인사들은 독선주의자로 공격

받기 시작한다. 그 첫 화살은 1948년 7월 '고려신학교와 소위 신성파(神聖派)에 대하여'라는 성명서를 통해 나타났다.

... 이제 우리는 생각하십시다. 미국의 남북장로교회에서 작당분쟁을 일삼아 평화와 질서를 의식적으로 파괴하다가 반역자로 몰려 추방당한 극소수인 그들(메이첸파)의 손에 우리 조선 장로교회를 맡긴다는 것은 조선 장로회를 전 세계적인 대생명체에서 절단하는 것이며... 또는 그들의 취하는 지도원칙인 사상에 절대 맹종하는 것은 조국을 잊어버리고 타국에 예속하려는 공산주의자와 무엇이 다르리오. 지난 서울총회에서는 고려신학을 총회와 절연하였고...³⁸⁾

경남노회는 이 성명서 발표와 더불어 고려신학교 문제해결을 위한 임시노회의 소집을 요구하였고, 1948년 9월 21일 부산 항서교회에서 모인 경남노회 제49회 임시노회에서는 1) 박형룡박사가 고려신학교를 이탈한 이유, 2) 고려신학교가 장로교 총회의 승인을 청원치 않은 이유, 3) 메이첸파 선교사를 교수로 채용한 이유 등에 대해 따졌고, 이 노회에서는 44대 21표로 고려신학교 인정취소를 결정하게 된다. 고려신학교 문제는 그 이후 경남노회의 주된 쟁점이 되었고, 한국장로교회의 분열로 치닫게 된다.

셋째, 박형룡의 이탈은 한국장로교회 보수 진영의 분열을 가져왔다. 당시 박형룡은 한국교회가 인정하는 보수주의 신학자였다. 그는 해방 직후인 1945년 11월 14일 평북 6노회 교역자 퇴수회에서 한국교

회 재건 기본원칙을 발표하는 등 교회재건(쇄신)에 참여하였고, 북한에서 이 일이 추진되지 못하게 되자 다시 만주로 돌아갔던 것이다. 이런 박형룡의 여정을 보면 박형룡은 한상동 및 그 동지들과는 신학적으론 신앙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상동과 결별한 것은, 책임 소재와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한국장로교회 내의 복음적 서클의 분열을 가져왔고, 이것은 한국장로교회 분열의 책임과 무관하지 않다. 이제 그의 언행이 한국교회의 분열에 영향을 줄 만큼 그 영향력이 확대되었던 것이다.

5. 박형룡과 한경직³⁹⁾

한국교회사에서 박형룡의 의의를 논함에 있어서 중요한 또 한 가지 주요한 사실은 박형룡과 한경직과의 관계와 1959년 승동측과 연동측의 분리였다. 반 고신(高神), 반 조신(朝神)의 온건한 중도교회 집단으로 구성된 주류의 한국장로교회는 일시 평화를 누렸으나 1959년 고신과 조선신학교측의 분열에 이어 제3의 분열을 경험하게 된다.

이 때의 분열의 표면적인 이유는 흔히 3가지로 지적된다. 즉 장로교회내의 세계교회협의회(WCC)에 대한 견해차, 박형룡교수의 3천만환 사건, 경기노회 총대건 문제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 대립의 중심에는 박형룡과 한경직으로 대표되는 두 집단간의 대립에서 연원된 견해

38) 김양선, 155.

39) 박형룡과 한경직을 축으로 한 1959년의 한국장로교회의 분열에 대해서는 한국장로교신학회(2004.9.18)에서 발표한 <1950년대 한국장로교회 분열과 연합에 대한 검토>에서 자세히 논의하였으므로 여기서 재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차였다. 분쟁의 소재는 WCC문제였으나 신학교 건축 기금 3천만환을 사기당한 박형룡에 대한 인책문제 등 복잡한 문제로 연결되었다. 특히 박형룡은 WCC를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WCC 지지 측의 인책요구도 거셌음을 알 수 있다. 한경직을 대표로 하는 WCC지지 측 인사들과 박형룡을 대표로 하는 WCC 반대 측 인사들 간의 대립이 이미 분열을 사실화했다.

1959년 대전총회에서 이 두 집단은 분리-대립하게 되었고, 이들이 각기 서울의 승동교회와 연동교회에서 별도의 총회를 개최함으로써 결국 승동측과 연동측으로 분리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볼 때 박형룡은 한상동, 김재준의 양 극단의 집단과 결별하고, 다시 한경직 중심의 집단과 결별함으로써 대한 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이라는 새로운 교단을 형성하는 과정을 밟아온 것이다.

비록 박형룡은 고신과 결별하고 OPC만이 아니라 다른 선교부와 연합하며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했으나 결과적으로는 보다 신학적 공감대를 공유하는 합동교회(단)의 형성에 영향을 주게 된 것이다. 결국 박형룡은 한국장로교회의 중요한 한 축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6. '교회의 교사'로서 박형룡

고려신학교를 떠난 박형룡은 서울로 가서 1948년 6월 장로회 신학교를 개교하였다. 1951년 9월 18일에는 대구에서 총회직영신학교인 총회신학교를 개교하였는데 지금의 총신대학으로 발전하였다. 박형룡은 이 학교의 교수로 교장으로 20여 년 간 봉사하시다가 1972년 2월

은퇴하였다. 박형룡은 그가 미국 유학에서 귀국한 1927년부터 평양의 장로교 신학교에서 교수하기 시작한 이래로 평양, 민주, 부산, 대구, 서울 등지에서 40여년간 교수로 혹은 행정책임자로 봉사하였다.

미국유학에서 귀국한 이후 평양의 신학교에서 변증학과 신학사상 기독교 윤리 등을 가르쳤는데, 민주 봉천신학교에서부터 조직신학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그 후 그는 변증학을 포함한 조직신학 교수로 일생동안 '교회의 교사' (doctor ecclesiae)로 활동했다.

신학교육은 그 시대 교회가 감당해야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인데, 칼빈 이후 개혁주의 전통에서 특별히 강조되어 왔다. 한 사람의 개혁자로서 신,구약성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칼빈은 신학교육을 통해 당시 교회를 개혁하고자 했다. 그가 설립한 제네바 아카데미가 유럽 전역에 개혁신학을 보급하는 근원지가 되었고, 영적 모국의 역할을 감당했듯이, 박형룡의 신학교육은 한국에서 보수주의 신학 형성과 발전, 계승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의 제자들이 한국과 세계도처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그가 끼친 영향이 얼마나 심대한 것인가를 확인하게 된다.

칼빈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퀴나스적 중세 실재론, 오감적인 유명론, 고대 지향적인(antiquity-oriented) 후기 인문주의, 인본주의적인 르네상스, 신령주의적 재세례파주의 등을 헤아려 보면서도 그런 사상과 구별되는 성경적인 개혁신학을 전개하였다. 칼빈과 베자, 알트시우스(Johannes Althusius, 1557-1638), 아메스(William Ames, 1576-1633)로 계승되는 개혁주의 전통에서 신학은 자연이나 인간적인 탐구에서 오는 그런 하나의 '학문'이 아니라, 계시로부터 나오는 하나

의 교의(doctrine)였다.⁴⁰⁾ 박형룡의 신학교육에서도 계시 의존적 신학교육은 그의 모든 활동의 기초였다.⁴¹⁾ 말하자면 그는 일생동안 정통 신학을 교수함으로써 한국교회에 영적인 방과제를 쌓고자 노력했다. 그는 정통주의 신학의 기초와 개요, 내용과 의미를 보여주는 개헌자(unfolding)로서 창조주와 피조세계의 의미를 해명하고자 했고, 지로자(指路者, guiding)로서 한국교회의 바른 길을 제시하는 목표지향적인 교육을 감당하며, 모범자(modeling)로서 본을 보이려고 했다.

정리해서 말하면 박형룡은 한국장로교회 신학교육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며 한국의 보수적인 장로교회 목사들의 신앙과 신학사상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가 남긴 저작의 절대 다수는 이런 신학교육을 위한 교제에서 발전된 것임을 알 수 있다.⁴²⁾ 그가 신학교에서 가르치기 위해 만들었던 프린트판 교재들, 예컨대, 신론(上, 장로회신학교, 163면), 신론(下, 장로회신학교 249면), 기독교론(총회신학교, 40면), 인죄론(장로회신학교, 398면), 구원론(장로회신학교, 381면), 교회론(장로회신학교, 129면), 말세론(장로회신학교, 49면) 등은 후일 그의 전 7권의 「교의 신학」의 근간이 된다. 그의 최초의 저작인 「기독교 근대 신학 난제선평」(1934)을 비롯하여, 그가 번역한 로라인 뵈트너(L. Boether)의 「칼빈주의 예정론」(*The Reformed Doctrine of Predestination*),⁴³⁾ 과 크레이크(Samuel G. Craig)의 「진정한 기독교」

40) 더 자세한 논의는 John vander Stelt, *(Theological Education in the 16th Century Reformers and Subsequent Reformed Tradition)*을 참고할 것.

41) 박용규, 157, 238 등.

42) 박형룡, 「교의신학」 2권(신론), 17.

43) 1934년 「신학지남」은 칼빈 특집호를 엮어 칼빈의 생애와 목회, 그리고 그의 신학에 관한 글을 게재한 일은 있으나, 한국에서 「칼빈주의」에 대한 논문을 최초로 발표한 이는

(*Christianity Rightly Socalled*), 「교의신학」 등 저작들은 한국에서의 신학교육의 책임을 다하려는 의지에서 생산된 결실들이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볼 때 교회의 교사로서의 박형룡의 기여와 공헌은 한국의 어떤 교회지도자나 신학자도 박형룡을 넘어설 수 없을 것이다.

7. 신학자로서의 박형룡

흔히 박형룡은 “변증학자로 시작하여 조직신학자가 된 분”이라고 하는데,⁴⁴⁾ 그는 변증학을 그의 「교의신학」의 서론으로 하고, 성경신학과 역사신학을 그 기초로 조직신학적 체계를 「교의신학」에 담았다. 이런 신학 분야 외에도 목회학, 예배학, 교회정치, 기독교교육학, 선교학 등에도 관심을 드러냈다.

그는 흔히 개혁주의 정통신학을 한국에 소개하는데 기여한 인물이라고 불리고 있다. 그가 프린스턴에서 공부한 기간(1923-26)은 미국교회의 신학적 변화와 이로 인한 대립과 갈등의 시기였다. 1812년 설립된 프린스턴신학교는 16세기 개혁신학과 17세기 유럽의 칼빈주의적 장로교 정통주의를 이어받는 “칼빈주의적 정통주의 신학의 진정한 보루(a vertitable bastion of calvinistic orthodoxy)였고, 알렉산

함일돈(F. Hamilton)선교사였다(「신학지남」 19권, 4, 5, 6호 <1937년 7, 9, 11월호>). 1937년 박형룡에 의해 역간된 뵈트너의 저작은 칼빈주의 신학에 관한 최초의 논저라고 할 수 있다.

44) 박이론, <죽산 박형룡박사의 생애와 신학> 「죽산 박형룡박사의 생애와 사상」, 145.

더, 하지, 워필드, 메이첸 등이 프린스턴 신학을 주도하였다. 그의 신학적 체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은 프린스턴의 신학자들 중에 특히 메이첸(G. Machen, 1881-1937)이었다. 메이첸은 1920년대의 근본주의와 현대주의 논쟁의 최전선에 서 있었고, 정통신학의 파수는 그 시대 그에게 주어진 소명이었다. 흥미롭게도 1928년 귀국한 박형룡은 마치 미국장로교 현장에서 메이첸이 그러했듯이 한국장로교회 마당에서 벌어지는 자유주의 신학사조에 맞서 싸웠다. 즉 그는 1930년대 한국교회의 '다른 전통'에 대항하고, 김재준의 자유주의 신학과의 일전을 통해 초기 한국교회의 정통신학을 지키고 이를 계승하는 역할을 감당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그의 신학은 방어적 성격을 띠게 된다. 어쨌든 박형룡은 1930년대 이래로 정통주의 혹은 보수주의라고 일컬어지는 한국교회의 신학전통을 기초 놓고 이를 파수하며 계승해 가는 50여 년간의 변증과 대결, 그리고 투쟁의 역사 중심에 서게 된다.

박형룡은 자신을 근본주의자라고 했는데, 역사적으로 근본주의는 1920년대 미국교회에서 일어난 신학운동이다. 자유주의자들 혹은 현대주의자들이 성경비평학을 도입하고 소위 과학의 이름으로 기독교의 기본교리를 부정했을 때 여기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운동이었다. 즉 근본주의는 성경의 축자영감과 무오성을 골자로 하는 정통적 기독교 교리를 옹호했다. 당시 미국에서 일어난 근본주의 운동은 자유주의라는 공동의 적을 물리치기 위해 칼빈주의자와 알미니안주의자들, 장로교와 침례교도들, 세대주의자, 오순절주의자 등 보수주의적인 인사들이 연합하여 형성된 신학운동이었다. 근본주의 운동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것은 1909년부터 1915년 까지 근본주의 총서(Fundamentals) 12권이 출판된 때부터이지만 이 운동은 1870년대에

이미 대두되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이 보여주듯이 근본주의는 근본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반대하는 보수신학을 의미했다. 박형룡이 이해하는 근본주의도 바로 이런 것이었다. 박형룡은 직접적으로 근본주의를 지지하는 두 편의 글을 발표했는데,⁴⁵⁾ 이 글에서 그는 근본주의는 선교사들이 전해준 신앙이며, 정통주의 기독교운동이라고 믿었다. 심지어 그는 근본주의는 20세기 미국적 배경에서 대두된 신학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며, 초대교회 교부들과,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파수하려했던 신학이었고 미국장로교회가 견지해 온 신학으로서 심지어 기독교 자체라고 이해했다. 말하자면 그는 근본주의를 정통신학과 동일시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근본주의는 별다른 것이 아니라 정통주의요 정통파 기독교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근본주의는 기독교의 역사적 전통적 신앙을 그대로 믿고 지키는 것, 즉 정통 신앙과 동일한 것이니 만치 이것은 곧 기독교 자체라고 단언하는 것이 가장 적당한 정의일 것이다. 기독교는 기독교 자체이다.”⁴⁶⁾

박형룡은 근본주의 말과 함께 '정통주의' 혹은 '보수주의' 라는 용어를 선호했는데 근본정신은 자유주의가 아니라는 점에서 거의 동의어로 사용하였다.

박형룡은 말년에 발표한 “한국장로교회의 신학적 전통”에서 한국 장로교회 신학사를 정리하면서 한국 장로교회의 신학전통은 청교도적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 신학은 구주대륙에서 발전된 칼빈의 개혁주의 신학에 영미의 청교도적 특징을 가미하여 웨스트

45) <근본주의>, 「신학지남」(1959. 12), 12-24; <근본주의 신앙> 「파수군」(1961. 1),

46) 박형룡, <근본주의> 「신학논문」(하), 280.

민스트 표준에 나타난 신학이라고 해설했다. 즉 박형룡은 그것을 자신의 신학과 동일시하면서 “청교도적 개혁주의 정통신학”이 자신의 신학임을 드러내고 있다.⁴⁷⁾ 말하자면 박형룡은 300여년 전 구라파에서 형성되고 체계화된 칼빈주의와 영국에서 형성된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을 근간으로 하는 신학이 스코틀랜드를 거쳐 미국으로 전수되고 약 200여년 동안 발전된 신학 전통을 따른다는 의미였다. 그는 이 신학이 한국장로교회의 신학적 전통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이 신학을 계승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 교회는 청교도적 개혁주의 신학적 전통 아래 하나님의 복 주심을 많이 받아 평시에 빨리 진보하고 환란 중에 생명을 보존하였다. 금후 우리의 환경에 천변 변화가 있더라도 우리는 결코 다른 사상을 따라갈 수 없다. 옛날 여호수아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서약하여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우리는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수 24:16)라 한 것 같이 우리 교회는 우리의 고유 신학적 전통을 버리고 다른 사상을 따르는 일은 결단코 하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서약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신학적 전통 아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 우리 민족을 하나님의 성민(聖民)으로 화하기에 노력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마땅히 전진할 것이다.”⁴⁸⁾

47) 「신학지남」 43권 3집(1976 가을호), 15.

48) 「신학지남」 43권 3집(1976, 가을호), 22; 박용규편, 51-2.

49) 박아론교수도 이 점을 인정하고 있다. “박형룡박사의 「교의신학」은 루이스 벌코프의 명저 「조직신학」(Systematic Theology, 1941)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벌코프의 「조직신학」을 그대로 옮겨놓는 부분들도 「교의신학」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다. 또 그의 「교의신학」 각권 내용의 대부분이 벌코프, 찰스 핫지, 워필드, 뎀니, 스트롱, 웨드, 카이퍼, 바빙크 등 서양의 선진 정통신학자들의 글을 인용하거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2년 전에 쓴 이 유언과 같은 논설에서 한국 교회가 청교도적 개혁주의 정통신학을 파수하고 계승해 가야할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은 이 신학이 한국장로교회의 정통 신학이자 최선의 신학체계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그의 신학은 부정적 의미의 근본주의자라고 보기 어렵지만, 그가 살아온 삶의 여정은 개혁주의적 이기보다는 근본주의적이었던 내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른 논자들에게 의해 논의될 것이기에 여기서 중론 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박형룡의 신학이나 신학 태도에 대해 몇 가지 고려해 볼 일이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박형룡은 미국의 개혁주의적 정통신학과 화란(구라파)의 개혁주의 전통이라는 두 갈래의 신학전통을 동시에 수용했다고 볼 수 있으나, 구라파의 개혁주의 신학에 대해 상대적인 무관심 혹은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박형룡은 미국신학은 직접적으로 배웠지만 화란신학은 간접적으로 배운 것으로 보인다. 그의 「교의신학」을 보면 17세기 유럽의 개혁주의적 정통신학을 계승한 프랜시스 투레틴(Francis Turretin, 1632-1687)의 신학을 이어받는 프린스턴 신학자들, 곧 찰스 하지, 에이 에이 하지, 워필드, 메이켄, 그리고 심지어는 침례교신학자 스트롱(A. M. Strong), 세대주의자 셰드(William G. T. Shedd) 등도 인용하고 있고, 화란계통의 카이퍼, 바빙크, 보스 등을 인용하고 있다. 특히 그는 화란 개혁주의 신학자 벌코프(Louis Berkhof, 1873-1957)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다.⁴⁹⁾ 그는 벌코프를 통해

참조한 것이라는 것도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은 이 박형룡의 교의신학이라고 하는 관현악단의 ‘여러 가지 악기들’이 하나의 완전한 곡조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아론, 「죽산 박형룡박사의 생애와 신학」, 153-4.

화란 신학 전통을 잇고 있다고 보여 진다. 박형룡이 벌코프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았다는 사실은 그의 「교의신학」이 벌코프의 조직신학의 구조를 답습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하다.⁵⁰⁾ 말하자면 그는 벌코프를 통해 화란 개혁주의 신학은 간접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한국교회에 소개했다고 할 수 있다. 이 당시 화란 개혁자들의 저술이 영역되지 못했고 그가 화란어를 읽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벌코프는 박형룡에게 화란 개혁주의 전통을 전수해 주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박형룡은 구라파적 개혁주의 신학을 다시 논구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말하면서 약간의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해방 광복 이후 우리 보수측 장로교계에는 매몰되었던 개혁주의 신학의 회복에 열중하면서 개혁주의라는 말이 점차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제 개혁주의 신학을 새로이 개발하여야 될 것 같이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개혁주의라는 제한 없이 막연히 사용하여 마치 유럽대륙에서 발전된 개혁주의를 우리 교회에 새로이 직접 수입해 올려는 것이 아닌지 모를 일이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옛날에도 개혁주의를 모른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드물게 썼고 혹은 장로교회라는 말에 그것을 포함시킨 것 뿐임이 상술한 바와 같으니 이제 개혁주의를 새로이 개발하거나 수입할 필요가 없다. 그

50) 김길성은 박형룡의 교의신학의 독자성을 강조하고, 벌코프의 것의 번안이나 확대정도가 아니라 '창작물'을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길성, 16ff. 또 김길성에 의하면 박형룡은 그의 말세론에서 벌코프의 조직신학 제6장 종말론의 일반적 순서를 따르고 있으나 벌코프의 입장을 단순히 번역하지 않고 자신의 독자적인 주장이 삽입되었다고 주장한다. Ezra Kil-sung Kim, <Dr. Hyung-nong Park's Theology of Last Things> *Chongshin Theological Journal*, Vol. 1, No. 2 (August, 1996), 73-75.

리고 우리 교회는 유럽대륙의 개혁주의에 영미의 청교주의를 가미하여 가진 장로교회이니 전자의 직접 수입을 수요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미 소유하고 있는 청교도적 개혁주의 장로교회의 신학적 전통을 확고히 보수하면서 그것의 해설에 필요한 보원을 행할 뿐이다.⁵¹⁾

물론 이런 견해는 이미 구라파적 개혁주의 신학이 영미 장로교 전통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구라파의 개혁주의 전통에 대한 상대적 무관심을 보여준다. 박형룡은 구프린스톤 신학-웨스트민스터 신학교로 이어지는 청교도적 보수주의 정통신학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을 불변의 전통으로 계승하고자 했지 유럽의 개혁주의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보았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세계관으로서의 개혁주의에 대한 거부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런 점이 그가 20세기 미국교회적 근본주의적 경향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둘째, 박형룡은 김영재의 지적처럼 보수신학 자체의 발전적 논의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이 점은 그의 술이부작(述而不作)의 태도 속에 나타나 있다. 흔히 인용되는 본문이지만 박형룡은 그의 「교의신학」 제1권 서문에서 이렇게 말한다.

이 책은 역시 다른 사람들의 회원에서 꺾어 모은 꽃다발에 지나지 못한다. 이것은 물론 필자의 이는 것이 적은 탓이지만 또한 본의

51) 「신학지남」 43권 3집(1976 가을호), 19; 박용규편, 47-8.

에 맞는 일이기도 한다. 필자의 본의는 칼빈주의 개혁과 정통신학을 그대로 받아서 전달하는데 있고 감히 무엇을 창작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옛 사람의 술이부작의 태도라 할 것이다. 팔십년 전 이 땅에 서양선교사들이 와서 전하여 준 그대로의 바른 신학을 새 세대에게 전달하는 것이 이 필자의 염원이기 때문이다.⁵²⁾

그의 의도는 바른 신학의 계승과 과수라는 점을 강조하지만 그의 신학적인 태도에는 경직된 면이 없지 않다.⁵³⁾ 흔히 ‘꽃다발 신학’이라고 불리는 그의 태도는 일종의 수구주의로서, 이런 입장은 교회전통과의 단절을 가져올 수 있다. 또 서구 신학전통에 대한 발전적 수용을 경시할 수 있다. ‘술이부작’은 동양적 학풍이자 예모(禮貌)이지만, 사대(事大)와 추수(追隨)의 반복 때문에 창신(創新)의 길을 방해 할 수 있다.

셋째, 일반적으로 박형룡은 구라파 개혁주의적인 전통을 충분히 소화하거나 소개하지 못함으로써 일반은총에 대한 이해와 문화 변혁적 이해를 심어주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박형룡은 벌코프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지만 벌코프가 가졌던 자신이 처한 삶의 자리에서 사회나 문화에 대한 관심이나 개혁주의적 성찰을 시도하는 경우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루이스 벌코프는 하나님의 주권의 우주적 성격을 강조하여 문화에 대한 소명, 곧 문화변혁을 강조했다. 그는 칼빈신학교에서 38년간 조직신학 교수로 봉직했는

52) 박형룡, 「교의신학」 1권, 서언.

53) 김영재, 204.

데, 우리에게 잘 알려진 「조직신학」(Systematic Theology) 뿐 아니라 성경신학과 사회윤리 분야에도 저서를 남겼다. 그는 근본주의와 현대주의 논쟁의 외중에서 근본주의자들이 무관심했던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표명했고, 사회복음주의에 대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그것은 바로 낙관주의적인 합리주의 신학인 사회복음주의에 대한 적절한 비판이기도 했다. 이런 그의 사회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작품이 「교회와 사회문제」(The Church and Social Problems, Grand Rapids, 1913)이다. 다시 말하면 벌코프는 근본주의를 동조하면서도 그들의 약점인 사회에 대한 건설한 관심을 회복하고 사회 문제에 대한 교회의 책임을 환기시켜 주었던 것이다.⁵⁴⁾ 그는 개인구원과 타계주의적 보수주의자가 아니라 문화변혁적 전통을 가진 개혁주의자로서 신칼빈주의(Neo-Calvinism) 전통을 수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벌코프의 신학으로부터 큰 빛을 지고 있는 박형룡에게는 그 시대의 사회나 문화현상에 대한 신학적 성찰이나 문화변혁적 관심이 희박했다. 이 점은 그의 글쓰기의 여정 속에 드러나 있다.⁵⁵⁾ 장동민은 박형룡은 “1940년 이후 조직신학을 강의하면서 프린스턴의 전통과는 다른 화란신학을 접하게 된다.”고 말하지만 그 이전에도 벌코프를 통해서 화란신학을 접했을 것이다. 그러나 박형룡은 장동민의 말처럼 “화란신학을 받아드린 후에도 변증학의 방법론과 그 내용이

54) Louis Berkhof, *The Church and Social Problems*, 5-20.

55) 박형룡박사의 저적 및 신학논문 목록 참고. 박용규편, 「죽산 박형룡박사의 생애와 사상」, 13-19. 장동민, 429-436.

별로 바뀌지 않았다" 면 그는 구 프린스턴의 신학 전통, 곧 하지, 위필드, 메이첸으로 이어지는 미국적 전통에 착근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박형룡이 살았던 시대적 상황, 특히 1930년대 이후 진보적 신학의 대두에 대하여 한국교회의 신학전통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 싸움 때문에 성경권위를 수호하는데 앞장섰고, 그 싸움의 외중에서 그의 신학은 근본주의적 경향성을 지녔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박형룡은 자신의 신학을 '청교도적 개혁주의 정통신학'이라고 불렀지만,⁵⁶⁾ 그 시대적 외인(外因) 때문에 그의 신학은 개혁주의적이기 보다는 미국적 의미의 근본주의, 혹은 개혁주의적 특성을 지닌 '정통주의' 신학자로서 근본주의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흔히 칼빈 이래로 최대의 칼빈주의 신학자로 불리는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 1837-1920)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왕권을 강조하고, 문화에의 소명을 강조했다. 그는 심지어는 정치 현실에 참여하여 개혁주의적인 이상을 수립하고자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형룡에게는 카이퍼적인 칼비주의적 세계관은 빈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1930년대에 대두된 진보적 신학과 화이부동(和而不同)을 거절한 박형룡에게서 카이퍼에게서 보게 되는 문화에 대한 세계관적인 체계까지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만일 그에게 그런 세계관적 체계나, 박형룡의 표현처럼 문화에 대한 '지로'(指路)가 있었다면 한국에서의 기독교는 오늘 현실에서 보는 신앙과 삶의 이원론적 괴리를 극복하는데 적지 않는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

56) 박형룡, <한국장로교회의 신학적 전통> 「신학지남」 43권 3호 (1976, 가을호), 11.

를 쇄신하고 혁신하고, 사회와 문화에 대한 기독교적 가치를 고양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을 것이다.

결론

유동식교수는 그의 「한국 신학의 광맥」에서 한국개신교 신학 백년의 흐름을 세 가지 유형, 곧 '보수적 근본주의 신학', '진보적 사회 참여의 신학', 그리고 '문화적 자유주의 신학'으로 분류했다. 그리고 보수적 근본주의 신학에 초석을 놓은 이로 길선주(吉善宙)와 박형룡을 들었다.⁵⁷⁾ 유동식에 따르면 박형룡으로 대표되는 보수적 근본주의 신학이 초기 한국교회의 신학이었고 한국교회 신학적 전통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박형룡은 근본주의, 보수주의, 개혁주의, 혹은 청교도 개혁주의 정통신학,⁵⁸⁾이라고 불리는 반 자유주의적인 신학의 수립과 체계화, 계승과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따라서 한국교회, 특히 한국장로교회에서 박형룡의 영향력은 과소평가 될 수 없다. 그는 한국장로교 신학의 정초를 놓은 인물이자 장로교신학의 보수주의적 전통을 엮어간

57) 유동식, 「한국신학의 광맥」 (전망사, 1986), 28-29.

58) 박이론은 한국교회 신학적 전통을 '보수주의' (「신학지남」, 1976년 가을호, 권두언), '청교도 개혁주의 정통신학' ('보수신학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1985, 195)이라고 불렀다. '청교도 개혁주의 정통신학'이란 '좌로는 성경영감을 부인하는 인본주의적 자유주의에 치우치지 않고, 우로는 방언, 신유, 목시, 예언 등을 일삼는 기도원적 은사주의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생활의 경건이라는 두 바퀴를 가지고 성경 66권의 권도를 굴러가는 신학'이라고 정의했다.

인물이라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는 한국의 보수적인 장로교회 목사들의 신앙과 신학 사상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가 「기독교 근대신학난제선평」에서 슬라이에르마허, 리츨, 바르트, 브른너 등 자유주의 신학과 신정통주의 신학을 비판하고 정통신학을 제시한 이래 한국교회의 역사 속에서 보수신학을 지키는 보루로서의 역할을 해왔고, 그의 교육과 저술, 설교와 가르침의 결과로 오늘과 같은 복음주의적인 장로교회가 형성되었다. 그의 7권으로 구성된 방대한 교의신학은 김길성의 지적처럼⁵⁹⁾ 한국 신학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위대한 업적으로 평가된다.

동시에 그에게는 한국 장로교회 분열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동시에 그는 한국교회 연합에 대한 아무런 관심도 보여주지 않았다. 교회 연합에 대한 그의 무관심이 동일한 신학을 견지하면서도 연합에 대해 냉담한 분리주의적인 경향성을 한국교회에 심어준 것으로 판단된다.

그에게도 의견을 달리하면서도 인내하고, 사상적 적수에게까지 인간적인 호의와 신뢰를 표명함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되 경의를 표했던 라이트푸트(J. B. Lightfoot)적인 '여유'가 있었더라면, 동일한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책임을 공유했던 김재준, 한상동, 한경직 등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오늘의 한국교회의 모습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없지 않다.

참고문헌

- 간하배, 「한국 장로교 신학사상」(실로암, 1988).
 기독교청년 면려회 경남연합회, 「면려청년」(1947. 11. 15).
 김경재, 「김재준평전」(삼인, 2001).
 김길성, 「개혁신앙과 교회」(총신대학교 출판부, 2001).
 김양선, 「한국기독교 해방십년사」(총회 종교교육부, 1956).
 김영재, 「한국교회사」(이레서원, 2004).
 김의환, 「도전받는 보수신학」(서광문화사, 1972).
 박아론, <박형룡의 신학사상>, 「신학사상」 25집(1979, 여름).
 박용규 편, 「죽산박형룡 박사의 생애와 사상」(총신대학교 출판부, 1996).
 박형룡, 「박형룡전집」(한국기독교교육 연구원, 1978).
 박형룡, <한국장로교회의 신학적 전통>, 「신학지남」 43권 3호(1976, 가을호).
 유동식, 「한국신학의 광맥」(전망사, 1986).
 이상규, <교회재건운동과 교신의 형성, 1945-1952>, 「논문집」(고신대학교) 12호(1984).
 장동민, 「박형룡의 신학연구」(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8).
 주남선, 한상동, 「대한 예수교 장로회 성도들 앞에 드림」(출판 및 연대 미상).
 천사무엘, 「김재준」(살림, 2003).
 한승홍, <정통보수주의 신학사상(1)>, 「목회와 신학」(1990. 10).
 Brown, A., *The Mastery of the Far East* (Scribners, 1919).
 Chun Sung Chun, *Schism and Unity in the Protestant Churches in Korea* (Seoul: CIS, 1965).
 Conn, H., <Studies in the Theology of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An Historical Outline>, Part I, *The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Vol. XXIX No. 1 (Nov. 1966).
 Kim, Kil-Sung, <Dr. Hyung-nong Park's Theology of Last Things>, *Chongshin Theological Journal*, Vol. 1, No. 2(August, 1996).
 Van der Stelt, *Philosophy and Scripture, a Study in Old Princeton and Westminster Theology* (New Jersey: Mack Pub. Co., 1978).

59) 김길성, 「개혁신앙과 교회」(총신대학교 출판부, 2001), 18ff.